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197 호

2019 년 1 월 15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UNGC 신 연회비 정책 소규모 간담회 개최 (1/18, 1/25)
2. 2019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발간 안내
3.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윤리적 고용 증진 워크숍 (2/13)

■ 본부 소식

1. 스투어드십(Stewardship)을 통한 물 안보 확보
2. 다보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도주의적 행동에 대한 전례 없는 교차 협력

■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6 – 물과 위생
2. [SDGs 시장기회] 무항생제 식품

3. [SDGs 솔루션] 식물 소재 칫솔로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

■ UNGC 회원 뉴스

1. 신보-신한銀,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기업에 금융지원
2. 가스공사, '공공기관 CSR 추진본부 가스공사 사무소' 문 열어
3. 중부발전, 신재생·친환경 투자목적 '그린본드 3억달러' 발행
4. BGF그룹 "임직원 힘 모아 기해년 첫 사랑의 소리 전해요"

■ CSR 뉴스

1. 관심 가져야 할 글로벌 사회공헌 이슈 '건강과 웰빙'
2.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어떻게 해야 하나?
3. 문 대통령 "사회적가치 관심...에너지전환 중단없다"
4. 中企, 과반수 이상이 사회공헌 활동 수행...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필요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UNGC 신 연회비 정책 소규모 간담회 개최 (1/18, 1/25)

UNGC 신 연회비 정책 소규모 간담회 개최

UN Global Compact (UNGC)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Vision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 간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레벨 (Signatory 또는 Participant)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존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연회비 정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2019년부터 변경되는 신(新) 연회비 정책은 연차총회 이후 도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정책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가능하신 일시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3차] 2019. 1.11 (금) 16:00 - 17:30
[4차] 2019. 1.18 (금) 16:00 - 17:30
[5차] 2019. 1.25 (금) 16:00 - 17:30

- ▷ 장 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 ▷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10'	UNGC 소개 및 참여 혜택 안내
20'	신연회비정책 안내
60'	Q&A

- ▷ 문 의: T. 02-749-2149/50, 2182 | E. gckorea@globalcompact.kr

* 본 간담회 대상은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민간 기업,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 신청링크가 열리지 않으실 경우 <기업(기관)명, 성함, 이메일, 휴대폰번호, 참석희망일시>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연회비 정책 안내](#)

[간담회 신청 링크 바로가기](#)

[사전 서베이 바로가기](#)

2. 2019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발간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6년, 2017년에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노력과 활동을 담은 '2019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은 매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UNGC Leaders Summit, UNGC 한국협회가 개최하는 여러 컨퍼런스, 국제회의 등에서 배포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UNGC 전세계 Local Network 중에서도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경제·사회·환경 등 국정 분야 전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7개 목표와 122개 세부 목표를 담고 있는 K-SDGs는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한국형 SDGs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또한 산업계를 대표해 K-SDGs 수립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작업반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SDGs 추진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의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는 회원 기업들의 SDGs 전략과 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번 사례집에는 2017년에 이어 'SDGs 달성을 위한 CEO 지지 서약'에 참여할 기업을 함께 모집합니다. 본 서약은 기업 및 산업별 특성을 살린 SDG 목표 및 행동 계획을 포함하며, CEO 서약을 통해 대외적으로 기업의 SDGs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2017년에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10주년을 맞이해 민간기업, 공기업, 시민사회 등 총 31곳이 서약에 참여하고 2017 UNGC Korea Leaders Summit에서 서약에 참여한 CEO를 모시고 서약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도 서약식을 개최하여 SDGs 달성을 위해 힘쓰는 CEO들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 추후 공지 예정)

자사의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회원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국문 및 영문



참여 회원

BEXCO, CJ 대한통운, CJ 제일제당, DGB 금융지주, KEB 하나은행, KOTRA, KT, LG 전자, LG 화학, SK 텔레콤, 기아자동차, 두산중공업, 서울특별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신한은행, 아모레퍼시픽, 예금보험공사, 유한킴벌리, 코웨이, 태광실업,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필립모리스

- 내용: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2) SDGs 전략 및 사례 (SDG Goal 6개 내외), 3)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활동 내용 (없을 시 생략)
- 양식: 국문 및 영문 각 A4 4매 내외(사진 포함), 글자크기 10 (양식 참고)
 ※ 사진 및 회사로고는 고화질 파일로 별도 제출 요망
- 일정: 국문은 2/11(월), 영문은 3/29(금)까지 제출
- 발간: 국문은 3월 초, 영문은 4월 초 예정

[2017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SDGs 달성을 위한 CEO 지지 서약> 국문 및 영문



CEO Commitment to SDGs / 지지 선언



- 내용: 기업 및 산업별 특성을 살린 SDG 목표 및 행동 계획, CEO 서명
- 양식: A4 1장 이내 (양식 참고)
 - ※ 회사 로고 및 CEO 서명 고화질 파일로 별도 제출 요망
 - ※ pdf 파일 제출시, 워드 또는 한글 파일도 함께 제출
- 일정: 국문은 2/11(월), 영문은 3/29(금)까지 제출

[\[양식 다운받기\]](#)

담당: 김경민 과장

T: 02-749-2150

E: kmkim@globalcompact.kr

-[원문보기](#)

3.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윤리적 고용 증진 워크숍 (2/13)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윤리적 고용 증진 워크숍



기업의 인권경영은 오늘날 글로벌 시장의 뜨거운 화두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내 투명하고 윤리적인 고용 관리는 권고 사항의 수준을 넘어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주요 시장을 차지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법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제 마련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향후 이러한 국내외 법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곳곳에 생산기지와 수출 통로를 구축한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 역시 공급망 내 윤리적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면밀한 리스크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는 2월 13일,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함께, 기업의 윤리적 고용에 대한 국내외 법제 동향과 산업별 우수 기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 내 현대판 노예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소개하고자 당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국내 글로벌 기업 관계자 및 유관기관 담당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대상:** 국내 글로벌 기업, 유관 기관 관계자
- **일시:** 2019년 2월 13일 (수), 14:00 - 18:00
- **장소:** 포시즌스 호텔 서울 6F 아라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7)
- **주최:**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 **참가신청:** <https://bit.ly/2VRxzXd>
 - 행사의 모든 순서에는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네트워크 세션에는 간단한 핑거푸드와 와인이 제공됩니다.
 -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하여 2월 1일 (수)까지 참석 신청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시간	주제	발표자
14:00 - 14:15	등 록	
14:15 - 14:20	환영사	박미령 소장 IOM 한국대표부 박석범 사무총장 UNGC 한국협회
14:20 - 15:00	글로벌 지속가능경영과 윤리적 고용 - 윤리적 고용에 관한 국제법 및 기준 동향 - 산업부문별 우수 글로벌 기업 사례	Kilian Moete 프로젝트 디렉터 Know the Chain
15:00 - 15:20	기업과 인권 그리고 사회책임투자의 국제 동향	이은경 책임연구원 UNGC 한국협회
15:20 - 15:40	휴 식	
15:40 - 16:10	인권경영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	조경재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16:10 - 16:50	글로벌 기업 공급망 내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 리스크 관리 전략	Maximilian Pottler 프로젝트 담당관 IOM 베트남대표부
16:50 - 17:10	질의응답	
17:10 - 18:00	네트워킹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 gckorea@globalcompact.kr | www.unglobalcompact.kr

[\[원문보기\]](#)

[\[참가신청 바로가기\]](#)

[\[초청장 다운로드\]](#)

본부 소식

1. 스튜어드십(Stewardship)을 통한 물 안보 확보



액션 플랫폼

물에 대한 불안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기업과 사회에 심각한 도전을 야기합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물 부족을 지난 5년 간 세계 3대 위험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2.5억 명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관리되는 물을 접하지 못하고 있고, 4.5억명은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 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5년까지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스트레스 (water-stressed) 지역에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본 플랫폼은 태평양 연구소(Pacific Institute)와 협력하여 민간 부문, 전문가, 시민 사회, 정부 및 국제연합을 한 데 모아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지도자와 학습자들이 수자원 스튜어드십 행동(water stewardship practices)을 채택하도록 촉진합니다. 이 플랫폼은 선도적인 회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혁신적인 수자원 스튜어드십 행동을 테스트하고 확장할 것입니다. 보편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지역 파트너십, 집단 행동 및 정책 계약을 촉진함으로써 플랫폼 참가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6: 깨끗한 물과 위생, 그리고 기타 글로벌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물 관리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참여 함으로써

물과 위생의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다루는 물 스튜어드십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한 물과 위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최첨단 지침과 도구들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며 실행합니다.

물 스트레스 지역에서 물 안보를 향상시키는 파트너십 기회들과 공동노력에 참여합니다.

정책전문가들과 협력하고 물과 위생에 있어 보다 넓은 정책결과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찾습니다.



플랫폼 활동들은 4 개의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1. 건강을 위한 물과 위생(Water and Sanitation for Health, WASH) 그리고 인권
2. 직접적인 실행과 공급망
3. 공동노력과 정책참여
4. 측정 및 지표 공개

#EveryDrop matters.



60% of companies are exposed to substantive risks from water, and over half expect these risks to materialize over the next **six years**.
Let's move towards a more sustainable model for water resources management.

Source: CDP Water Report 2017



-원문보기

2. 다보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도주의적 행동에 대한 전례 없는 교차 협력

2019 년 1 월 22 일부터 25 일까지 27 개 민간 부문, 유엔 및 국제기구가 다보스에서 범세계적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읍니다.

이 그룹은 2019 년 세계 경제 포럼 연례 회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영향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공통된 목표 하에 '지속가능임팩트허브(Sustainable Impact Hub)'에 모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협력은 더 나은 세계를 창조하는 데 필수적이며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가 모두 충족되지 않는 더 나은 세계는 창조 될 수 없다"는 공동 메시지로, 다보스 회의에 참석한 사회 각 부문의 의사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메드 알 메리키(Ahmed Al Merikhi), 인도주의 특사(UN Secretary-General's Humanitarian Envoy)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17 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함께하는 2030 아젠다는 보편적이며 이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는 모든 자원과 다수의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을 통해 효율성과 임팩트가 전달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9 다보스 연례회의 주제, '세계화 4.0: 4 차산업혁명의 시대에서 글로벌 구조 조성' 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17 개의 글로벌 목표들을 향한 많은 기업 이니셔티브가 장려 되고 있지만, 우리는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더 박차를 가해야 하고, 모든 기업들을 기업지속성을 단지 좋은 아이디어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티핑포인트에 도달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롭 아커(Rob Acker) 세일즈포스닷컴(Salesforce.org) CEO 는 "올해 다보스에서 열린 '지속가능임팩트허브'에 일원이 된 것과 유엔과 비정부 기구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공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글로벌 협력과 민-관 파트너십은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달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며, 이 일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주의적 우선 사항과 약자들의 요구의 변화는 더 이상 인도주의 관련 행위자들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를 위한 의제와 SDGs 는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민간 부문의 행동과 파트너십의 가치를 이미 인정하고 있으며, 여러 유엔 총회 결의안은 17 개의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일하는 인도주의적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울 찬드란(Rahul Chandran), GAHI 이사는 “만약 우리가 이 위기상황에서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SDGs 를 성취하지 못하고 뒤쳐진 채 남겨두게 될 것 입니다. 회사들과 인류, 유엔과 소규모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진솔하고 장기간 파트너십을 통해 모여 이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한다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60 도 라이브 토론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리더들이 난민과 이민자들, 청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최악계층을 위한 교육, 기술, 그리고 고용을 보장을 위한 협력과 같은 우선순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례회의의 내내 방송될 예정입니다. 방문자들이 테마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새롭고 상호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메드 알 메리키는 “늘어나고 있는 인도적 도전들에 대응하는 것과 SDGs 가 계획한대로 아무도 뒤에 뒤쳐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혁신적인 협력에 기반한 민-관 파트너십의 동기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보스에서 ‘지속가능임팩트허브’는 주요 이해관계자들간에 적극적 협력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티니렐로(Marco Tinnirello), 유로비전서비스(Eurovision Services) CEO 는 ‘유로비전 서비스는 다보스에서 논의했던 토픽들을 공유하기 위해 ‘지속가능임팩트허브’과 파트너를 맺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는 원거리 프로덕션을 제공하여 생중계로 모든 파트너들에게 그들의 웹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채널에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적 협력을 응원하고 전문적인 방송과 미디어 방안을 활용해 지속가능임팩트 허브의 콘텐츠의 도달이 최대치가 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들을 지원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속가능임팩트허브(Sustainable Impact Hub)’

- ‘지속가능임팩트허브’는 2019 년 1 월 21 일에서 25 일 동안 스위스 다보스 플라츠, 72 프로메나드에서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 30 까지 열립니다.
- 2019 년 협력파트너들은 UN Global Compact, Elhra, Global Alliance for Humanitarian Innovation, IFRC, IOM, OCHA, ODI, SDG Lab, Connecting Business initiative UNDP, UN Foundation, UNHCR, UNICEF, WFP, 그리고 WHO 가 포함됩니다.
- 본 이니셔티브는 CvB 다보스, Devex, 유럽방송연합, 유로비전 서비스, GlouNNet, GSM 협회, 마스터카드, Philathropy Adviosrs, Salesforce, UN 인도주의 특사, 웨스턴 유니온 그리고 세계 경제포럼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2 개의 인도적 기구와 민간 부문 기구들이 2018 년 1 월에 다보스에서 지속가능임팩트허브를 통해 처음으로 성공적인 협력을 달성했습니다.

- 지속가능임팩트허브는 Alliance4Impact 에 의해 조직 및 운영됩니다.

[-원문보기](#)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6 – 물과 위생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The Blueprint for SDGs Leadership)은 17 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기업 리더십 사례와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한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 중 하나입니다.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은 LEAD 기업, 유엔 기구, 시민사회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개발한 UNGC 각국협회 실무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How business leadership can advance Goal 6 on Clean Water and Sanitation

GOAL 6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지속 가능한 물 관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복지, 경제적 생산성 및 환경 탄력성에 필수적입니다. 현재 기후변화 및 인구증가 동향으로는 2025 년 세계 인구의 3 분의 2 가 물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에 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도적인 기업들의 지역 사회 참여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지역 사회 운영에 있어 물의 위험과 영향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동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업을 자체 시설, 공급망 및 더 넓은 지역 사회에 걸쳐 깨끗한 물 및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사회, 경제, 환경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자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및 시민 사회와의 투자 및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자연 기반 시설을 보호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ACTION 1

회사 및 공급망 운영 주변 구역에서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유익한 총괄적인 수자원 전략을 개발하고 구현합니다.

우수사례

- 광산 회사 A 는 모든 집수 관련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구역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개발합니다.
- 화학 제조업체 B 는 담수의 산업적 활용을 피하고, 50 만 명의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고자 도시 폐수 처리 공장에서 재사용된 활용합니다.



BUSINESS ACTION 2

자체 운영 설비 및 공급망 주변의 수자원 생태계를 보호하거나 복원하는데 앞장섭니다.

우수사례

- 자동차 제조업체 C 는 빗물 집수 시설에 투자하여 생산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만큼 보충하고 환경, 인구 및 산업에 적절한 물 공급을 보장합니다.
- 음료 제조업체 D 는 농산물을 위해 지하수가 필요한 농장의 수자원 보충에 대한 기술 및 활동에 투자합니다.



BUSINESS ACTION 3

현지 물 공급 관련 공급망 전략들과 회사들의 영향력을 강조하여 물과 위생의 이해당사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우수사례

- 수력발전 댐 운영자 F 는 양질의 수자원들이 유역을 통해 에너지 제공 및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새 댐으로부터 마을 하류까지 위생시설을 제공합니다.

[-원문보기](#)

2. [SDGs 시장기회] 무항생제 식품

전 세계적으로 농업에 가장 많은 항생제가 소비되지만, 점차 저 많은 소비자들은 항생제 없는 고기를 요구하고 있다.

항생제 없는 식품시장은 아직까지 틈새 시장이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무항생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무항생제 식품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항생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환경 및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항생제 없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항생제의 80 %가 농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농업에서 항생제 사용은 2010 년에서 2030 년 사이에 67 %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증가의 대부분은 중국, 인도 그리고 중산층이 빠르게 늘어나 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나라들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생제는 동물의 질병을 치료 할뿐만 아니라 동물을 더 빨리 성장시키고 건강에 해로운 성장 조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MARKET KEY NUMBERS



1987년에서 2013년 사이, 노르웨이의 양식에서는 생산량이 20배 증가하는 동안 항균제의 사용빈도가 99%정도 줄었다.



식품 생산 시 사용되는 76%의 승인된 항생제들이 의학적으로 인간에게 중요하다고 분류된다.



소비자의 86%는 '무항생제' 육류를 그들의 지역식료품점에서 사길 원하고 그 중 60% 이상은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새로운 시장의 등장

슈퍼마켓들은 공급받는 고기의 항생제 사용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게들은 이미 항생제가 없는 고기만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가게들은 항생제 사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진술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항생제 없는 육류의 매출은 약 5 %에 불과하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를 쓰지 않은 닭의 판매가 2014 년에 34% 증가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많은 패스트푸드 체인이 무항생제 닭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항생제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알려주는 디지털 앱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항생 물질에 대한 내성에 맞서기 위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국가가 각국의 실천방안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에 따라 무항생제 식품에 대한 시장 기회는 더욱 인식이 높아질 것입니다. 농업에서 항생제의 과다 사용을 줄이는 것은 국가 계획의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그것은 농장으로부터의 항생제의 누출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A Global Gold Standard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 압력과 함께 항생제가 없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육류 가치 사슬에 대한 도전과 기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은 무항생제 육류 시장에서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닭은 생산 주기가 짧기 때문에 비교적 덜 복잡하게 닭의 질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육류 제품의 경우,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생산 방법론과 시장 잠재력을 시험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점차 시도되고 있습니다.

항생제 사용 없이 또는 책임 있는 항생제 사용과 함께 생산된 육류 제품을 인증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표준의 개발은 이러한 시장 기회를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항생제 없이 길러진 제품' 또는 '책임 있는 항생제 사용'이라는 문구가 쓰인 명확한 고기의 라벨은 소비자들이 항생제 없는 고기를 더 확실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농장에서 항생제를 적게 쓴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내성균이 적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Survey Findings 조사결과

항생제가 사용되지 않는 식품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식품은 현재 전체 육류 시장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적 실천방안을 발전시킬 것이며, 그러한 실천방안은 무항생제 식품의 미래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장은 2015 년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5500 명 이상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YouGov 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 전문은 *Global Opportunity Report 2016*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3. [SDGs 솔루션] 식물 소재 칫솔로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

대나무 칫솔은 세계 최초의 식물 기반 칫솔이며, 화학비료를 쓰지 않은 중국의 거대한 모소(Moso) 대나무와 생물 기반의 칫솔모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브러시는 전 세계의 상점에 친환경 칫솔로 공급됩니다. 칫솔의 빗살, 손잡이, 포장지 및 상자 등 칫솔뿐만 아니라 포장까지 모든 구성 요소는 생물학적 기반입니다. 손잡이는 환경 친화적으로 분해되며 살충제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중국의 거대한 유기농 모소(Moso) 대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제조된 피마자 콩 기름으로 만들어진 강모는 생물 기반이며 62 %의 피마자 기름과 38 %의 (플라스틱 기반)나일론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장 친환경적인 칫솔 중 하나로 손 꼽히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나무 장인 정신에 대한 오랜 역사를 지닌 중국의 한 지역에서 유기농 대나무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무의 형태를 만들기 전에, 대나무 조각 공정에서 나온 나무의 자투리 조각을 태우면서 생긴 열을 이용해 대나무를 끓이고 건조시킵니다.



Why you should care

보통 미국 시민은 매년 4 개의 플라스틱 칫솔을 소비하며, 일년에 총 10 억 개 정도의 칫솔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쓰레기 매립지에 가거나 소각되거나 또는 부적절한 처분으로 인해 자연 환경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 기업은 사용 후 칫솔을 적절하게 처분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강모를 제외한 모든 것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플라스틱 포장 및 재배 과정에서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대나무 솔은 천연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환경적으로 화학 물질 관리를 보장합니다.



Life Below Water

칫솔과 그 외 아주 흔한 플라스틱들은 해변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먹이로 발견되며, 플라스틱 조각들을 종종 새끼들이 먹기도 합니다. 대나무 칫솔은 천연 제품이 플라스틱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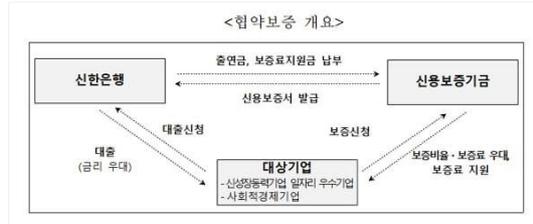
[-원문보기](#)

UNGC 회원 뉴스

1. 신보-신한銀,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기업에 금융지원

신보-신한銀,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기업에 금융지원

김민수 기자 (kms@ajunews.com) | 입력 : 2019-01-08 10:58 | 수정 : 2019-01-08 10:58



[자료=신용보증기금 제공]

신용보증기금과 신한은행은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 신용보증기금과 신한은행은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 우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의 지원 대상은 신성장 공동기준 275 개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유망창업기업 등임.
- 신보는 신한은행과 지난해 3 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해 대상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이 출연한 특별출연금 90 억원과 보증료지원금 23 억원을 통해 총 5630 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임..
-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업력 7 년 이내 창업기업은 보증비율(100%)과 보증료(0.2%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함. 그 외 기업은 신한은행의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0.2%포인트의 보증료를 3 년간 지원함.
- 또한 신보는 신한은행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임.
- 신보는 신한은행이 출연한 보증료지원금 3 억원을 통해 총 200 억원의 보증을 지원하며, 대상기업의 보증료를 매년 0.3%포인트씩 5 년간 지원할 계획임.
- [아주경제](#)

2. 가스공사, '공공기관 CSR 추진본부 가스공사 사무소' 문 열어

NEWSIS 경제 > 경제일반

가스공사, '공공기관 CSR 추진본부 가스공사 사무소' 문 열어

김경원 기자 | kimkw@newsis.com

등록 2019-01-03 16:19:09



-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 일 대구 본사에서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 사회공헌 발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무공간 지원 협약을 맺고 '공공기관 CSR 추진본부 가스공사 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3 일 밝혔다.
- 가스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2021 년까지 3 년간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본사 사옥 내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 등 편의를 지원하며,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기로 했음.
- 특히 기업이 단순 후원을 넘어 공공자원을 장기적으로 개방·공유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생 사회공헌의 선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이재모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기관 CSR 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며 "가스공사와 함께 한층 전문화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 임종국 가스공사 경영관리부사장은 "앞으로도 가스공사 대표 사회 공헌 브랜드인 '온(溫)누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활동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등 지역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함.
- [뉴스시스](#)

3. 중부발전, 신재생·친환경 투자목적 '그린본드 3억달러' 발행

중부발전, 신재생·친환경 투자목적 '그린본드 3억달러' 발행

기사입력 2019.01.16 14:24 최종수정 2019.01.16 14:24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중부발전은 3년 만기 3억달러 규모의 그린본드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오전 중부발전이 진행한 그린본드 수요예측에는 169개 기관에서 총 28억 달러의 주문이 들어왔다. 이번 그린본드는 무디스 'Aa2', S&P 'AA'등급으로 국가와 동일한 등급을 부여받았다.

중부발전의 그린본드 딜은 2019년 한국물의 첫 번째 발행인 동시에 아시아에서 AA등급의 첫 번째 발행으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고, 그린본드라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불러올 수 있었다.

- 한국중부발전은 3년 만기 3억달러 규모의 그린본드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16일 밝혔다.
- 지난 14일 오전 중부발전이 진행한 그린본드 수요예측에는 169개 기관에서 총 28억 달러의 주문이 들어왔다.
- 이번 그린본드는 무디스 'Aa2', S&P 'AA'등급으로 국가와 동일한 등급을 부여받았다.
- 중부발전의 그린본드 딜은 2019년 한국물의 첫 번째 발행인 동시에 아시아에서 AA 등급의 첫 번째 발행으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고, 그린본드라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불러올 수 있었음.
- 그린본드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투자와 탈황, 탈질설비 등 친환경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목적을 제한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최근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문이 뒷받침되면서 최종 가산금리는 최초 제시 금리(이니셜 가이던스) 125bp(1bp=0.01%포인트) 보다 30bp 낮은 95bp 에 결정되었음.
- [아시아경제](#)

4. BGF 그룹 “임직원 힘 모아 기해년 첫 사랑의 소리 전해요”

[대한민국이 좋다] BGF그룹 “임직원 힘 모아 기해년 첫 사랑의 소리 전해요”

BGF복지재단과 2019년 첫 'BGF 사랑의 소리' 전달...사전검사부터 재활훈련까지 서포트 BGF 임직원, 10년째 자발적인 급여 우수리 정기 기부...진정성 있는 나눔활동 이어갈 것

김아라 기자 승인 2019.01.13 14:01



민승배 BGF 그룹 커뮤니케이션실장(오른쪽)이 정해영 사랑의달팽이 상임부회장(왼쪽)에게 BGF 사랑의 소리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BGFPR팀 제공.

- BGF 그룹이 기해년 첫 번째 '사랑의 소리'를 전했다고 13 일 밝혔음.
- 'BGF 사랑의 소리'는 청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각 장애 아동들을 위해 마련된 수술 지원 기금임.
- 해당 기금은 BGF 그룹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의 일정 부분을 정기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활동으로 모인 재원과 그에 상응하는 BGF 복지재단의 지원금이 더해져 마련됨.
- BGF 그룹은 2010 년부터 사랑의달팽이와 함께 청각장애 어린이들의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34 명의 아이들이 수술을 마쳤음.
- 민승배 BGF 커뮤니케이션실장은 “BGF 그룹 임직원들의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모여 청각 장애 아동들의 소리 없는 세상에 울림을 줄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다”며 “BGF 는 올해에도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나눔을 이어가며 어려운 이웃의 친구 같은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음.
- 한편 BGF 그룹은 BGF 복지재단과 함께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CU 새싹가게', 발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CU 투게더', 시각 장애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들의 눈, 꼬끼리 만지기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매일일보](#)

CSR 뉴스

1. 관심 가져야 할 글로벌 사회공헌 이슈 '건강과 웰빙'

[2018 사회공헌] 관심 가져야 할 글로벌 사회공헌 이슈 '건강과 웰빙'

권민수 기자 | 승인 2019.01.09 15:39



102개 사회공헌기관이 뽑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요도 출처: 2018 사회공헌 백서

- 기업이 관심 가져야 할 글로벌 사회공헌 이슈는 '건강과 웰빙'인 것으로 나타남. '2018 사회공헌 백서'에 따르면, 기업사회공헌 이해관계자들은 SDGs 의 17 가지 이슈 중 가장 관심 가져야 할 것으로 '건강과 웰빙'을 꼽았음.
- 기관들이 건강과 웰빙을 주요 사회공헌 이슈로 뽑은 것은 기업사회공헌 이해관계자들이 질병예방, 보건교육, 의료비 지원 등 경험을 기반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여짐.
- 국내 이슈들 중,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는 '소득 및 주거 불안'을 꼽았음. 다만, 기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조금씩 상이함. 모금/배분전문기관은 '소득 및 주거불안'과 '노동불안정'을, 사회복지단체 등은 '삶의 질 저하'를, 기업 출연 재단은 '교육불평등'을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했음.
- 종합적으로, 기관들은 '소득 및 주거 불안', '환경오염', '사회구조 변화', '삶의 질 저하', '사회통합' 등을 중요한 사회문제로 봤음. 한편, 기업사회공헌 이해관계자들은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맺는데 적극적인 것으로 보임.
- 이 파트너십은 공공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더 활성화 되었으며,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미디어 SR](#)

2.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어떻게 해야 하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어떻게 해야 하나?

김관영 기자 | 승인 2019.01.11 | 댓글 0

| 공공부문 노동조합 역할도 중요

[리포트]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성과연봉제 폐지 등과 더불어 내년부턴 경영평가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외부의 요구와 내부의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지난 4일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과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공동주최한 '상생과 연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토론회'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공공기관이 목표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지, 그 방법으로는 무엇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 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고 내년부턴 경영평가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겠다고 예고함.
-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아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음.
- 공공기관이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 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는 게 사회적 가치법의 골자임.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 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공공성 순위는 최하위라고 함.
-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 주요 사업의 연장선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확장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민간이 실천하기 어려운 지역 인재, 장애인 채용 등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함.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비록 재정적으로는 적자여도 사회적으로 더 큰 공적 가치를 발휘하는 '사회적 적자'개념이 자리잡혀야 한다"고 말함.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포함한 여러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 책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노동조합을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노동조합 역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함.
-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효율성과 생산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함.

-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가치도 단순히 공공부문의 규모를 키우고 공공조달의 방식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공공성을 증진하면서도 혁신과 효율을 담보할 것인지 사회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 [참여와혁신](#)

3. 문 대통령 “사회적가치 관심...에너지전환 중단없다”

문 대통령 “사회적가치 관심...에너지전환 중단없다”

[기업인과 대화] 이재용, 대통령에 “3년간 4만명 일자리 약속 지키겠다...이번엔 우리 연구소 외달라”

조원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9년 01월 15일 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과 만남에서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주장과 관련 에너지전환 정책흐름의 중단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등 대기업으로 3년간 4만명 일자리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문 대통령에 삼성의 인도공장 외에 국내 공장과 연구소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과 만남에서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며 최근 논란이 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울 3, 4 호기 공사 재개 주장과 관련 에너지전환 정책흐름의 중단은 없다고 못박았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 등 대기업으로 3 년간 4 만명 일자리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 ‘일자리 3 년간 4 만명’은 꼭 지키겠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기업의 의무이다. 개인적 이야기를 하자면 두 아이 아버지로서 아이들 커가는 것 보며 젊은이들 고민이 새롭게 다가온다”고 말했음.
-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한울 원전 3,4 호기 건설 재개를 두고 “현재 원전 5 기를 건설중이다. 3 기는 2022 년까지 준공 예정이다. 이후에도 2 기가 더 준공된다. 현재 전력 설비 예비율이 25% 넘는다. 5 기를 더 준공하면 전력설비예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기술력, 국제경쟁력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이 분야 지원을 계속하고, 기자재·부품업체의 어려움을 귀 기울이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음.
-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의지를 피력하고 여당과 노력해왔다. 기업 입장에서 속도에 아쉬움 있을 수 있다”며 “규제혁신 부분은 대한상의회 정부가 TF 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검토하며 성과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음.
- 문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 “기업에 당부드리고 싶다. ‘투자과 혁신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투자와 혁신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기업은 경제적 과제와 아울러 사회적 과제 해결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에 감사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기본법이 국회 계류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도록 기업도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음.

- 또한 문 대통령은 안전, 환경, 지역경제 기여, 노동자 복지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다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좋은 일자리, 둘째 상생과 협력이라고 했음.

- [미디어오늘](#)

4. 中企, 과반수 이상이 사회공헌 활동 수행...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中企, 과반수 이상이 사회공헌 활동 수행...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필요

2018 중소기업 사회공헌 현황조사 결과 발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61.7%...2015년 61.5%보다 소폭 상승

안병준 기자 | 입력 : 2019.01.15 14:26:58

중소기업 2곳 중 1곳 이상이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서석홍)이 중소기업 31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중소기업 사회공헌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61.7%로 지난 조사인 2015년 61.5%보다 소폭 상승했다.

사회공헌 평균 투자비용은 2018년 2억1500만원으로, 2017년 2억2100만원 보다 감소했다.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는 예산부족(71.4%)과 전담인력부족(14.3%)을 꼽았다.

- 중소기업 2곳 중 1곳 이상이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서석홍)이 중소기업 31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중소기업 사회공헌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61.7%로 지난 조사인 2015년 61.5%보다 소폭 상승함.
- 사회공헌 평균 투자비용은 2018년 2억 1500만원으로, 2017년 2억 2100만원 보다 감소함.
-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는 예산부족(71.4%)과 전담인력부족(14.3%)을 꼽았음.
- 사회공헌의 추진 배경에는 내부적으로는 CEO 의지(77.6%)가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 외부적 요인으로는 기업 이미지 개선(10.4%)을 주로 꼽았음.
- 사회공헌활동대상으로는 `국내`라고 답한 응답이 압도적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아동·청소년(43.2%), 노인(18.8%), 장애인(15.1%) 순이었음.
-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24.5%), 사회공헌 플랫폼 마련(23.4%) 등 직접적인 규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매일경제](#)

* 본 콘텐츠는 최근 CSR 동향 기사를 발췌한 글로 협회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 월 2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5 곳 입니다.

- 롯데홈쇼핑
- (주)테라컨설팅그룹
- 신한대학교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늘푸른직업재활원

2. COP/COE 제출회원

1 월 2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3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비씨카드
- 삼덕통상
- 울산항만공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UN Global Compact (UNGC) 본부의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라 2019 년도부터 **UNGC 의 모든 영리/비영리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UNGC 한국협회의 연회비 정책도 본부 정책에 맞춰 2019 년도부터 새롭게 변경되며, 새로 적용되는 신(新) 연회비 정책은 2019 년 3 월 초 개최되는 UNGC 한국협회 연차총회 의결 이후 도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기존 1/4 분기 납부 기업의 연회비 청구서는 총회 의결 이후 발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1/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 극지연구소, 슬로워크, GS 건설, 두산중공업,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주)BGF, 카이스트 경영대학, 구미시청, KT, 한국국토정보공사, 유니베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LG 화학, 신한은행,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K 텔레콤,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KEB 하나은행, (주)케이티하이텔, GS 칼텍스, 팬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뇌교육협회,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한국연구재단, 미술등록협회

<2018 년도 연회비 미납 기업>

한국남부발전, (주)제씨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극지연구소, 카이스트 경영대학, 미술등록협회, 열매나눔재단, (주)나인, 삼덕통상, 태광실업(주)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